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 Yun, Ph. D., D. 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우리 공동체” (Our Community)

■ 시편 16편 5-11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너무도 독특한, 너무도 특별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고, 그 만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창1:26절, 창1:7절).

1.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실 때 “우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적 관계는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제를 일컬어 C. S. Lewis “Divine Dance 신적 유희”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2. 삼위일체, 그 공동체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피로 묶여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주 분리하고 나누게 합니다. 서로 오해하게하고, 서로 불신하게 해서, 증오와 상처 가운데 서로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고,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 그들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3. 이제 완전한 공동체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요 17:21-23절).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우리가 거의 매일 외우다시피하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 그냥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6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우리”라고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혈육형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락방 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아 사는 더 깊은 형제자매로서 손에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시16“5-6절).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이실까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축복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모임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감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절)

맺는 말

이제 우리는 많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서울교회 다락방 사역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Ⅲ,Ⅳ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Ⅰ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903호
						Ⅱ부 (4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Ⅱ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Ⅲ부 (50대)		오전10시	401호
						Ⅳ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Ⅲ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Ⅴ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디부		Ⅰ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Ⅱ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 가 족 부	Ⅰ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Ⅱ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Ⅲ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702호	소요리문답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신앙강좌Ⅰ·Ⅱ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현상 황광 박종민 문정훈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교육전도사** 김은수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교사 강아름·주한나, 이사라, 권요셉·조에스디,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페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물·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원해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강태식, 윤왕보,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Joshua Cho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118:1-4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26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Moon Seok Seo
Hymn 494(188)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Luke 3:1-18	Presider
Member's 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Amazing Grace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Sermon John' s Message of Repentance	Rev. Joshua Cho
* Hymn 272(33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John' s Message of Repentance

Luke 3:1-18

Summary of the sermon

Is it possible for a person to change? Many people say no. The Bible says yes. The biblical word for change is "repentance." Repentance is not just feeling sorry for what you've done. It is a fundamental change in a person's mind and attitud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God. It is a turning away from sin and turning towards God. We must repent, because we have been given Jesus Christ, who is the true agent of change. So how can we repent?

First, we must know our true condition. John the Baptist called the people "brood of vipers." He was not trying to insult, but show their identity. We are not sinners because we sin, but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Therefore, God's wrath is over us, like a "raised ax." Do you see that your sin is not just in your actions, but rooted in your heart? Next, we must check the fruit. John continued with practical advice. Those who have must share. Tax-collectors and soldiers shouldn't abuse their power. But John was not preaching moralism! He was describing the "fruit" of repentance. If you have truly repented, it will show in how you deal with people. Have you repented? Then, where is your fruit? Finally, we must turn to Christ. John concluded by describing Christ. He was more powerful than him! Like a farmer, he would gather the wheat, but burn the chaff. This was frightening, but it was "good news." To escape his judgment, you must run to him! But when you do, you will find him to be both a powerful Judge and a loving Savior!

Do you want to change? The wonderful news of the gospel is that Jesus brings forgiveness through the cross. We can start anew with a clean slate. Not only that, but he has given us the purging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 other words, he is at work in us to turn us away from sin and back to God. To borrow the words of a recent U.S. president, "yes we can," because "yes he has"! May we respond to this message of repentance, and turn back to God!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This is it! The final push! Our first "Lean On Me" Open House is this Sat (3/12), 2-4pm!
- LOM Committees are meeting today in Room 104 at 2:15pm.
- We need your help! This Tue (3/8) at 7pm, we are going out to put up posters all over Daechi-dong.
- This Wed (3/9), our Wed Bible Study is starting up. We are studying the Gospel of John.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정수길 목사	하영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노송성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르 Call to Worship	시 121: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삼가형) 다 함 께
	2부6X(시편139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5(5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상 17-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고난 속에 감춰진 진정한 축복"	박노철 목사
	(True Blessing Hidden in a Hardship)
* 찬 송 Hymn	272(330)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후 5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3:2	인 도 자
찬 송 445(502)	다 함 께
기 도	최승환 집사
찬 송 432(462)	다 함 께
성 경 롬 8:18-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소망으로 얻는 구원"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484(53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학습·세례식-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김광신 장로, II부: 오정수 장로
성 경	느 4:15-23
학습·세례식	집례자
찬 양	찬양대
설 교	"균형잡힌 신앙" 설교자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권현숙·홍혜란·김양인

설 교 박노철, 문정훈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권)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어린이들이 부르짖네	R. Nathaniel Dett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분향을 향하네	김두완	고성진	김원정1	김양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평화의 기도	홍정표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이하진
찬양예배	베들레헴	찬양하라, 하늘의 왕	Mark Andrews	김낙형	오신옥	박수강	
영아예배	예루살렘	Amazing Grace	Robert Sterling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부	호 산 나	소금과 빛으로 미운라진 세상	황의구	서희숙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참 아름다운 주의 집	Carl B. Adams	백경화	이순재	변지원	

<헌금송>

I부	유 년 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고유나	한현숙		박승기	
II부	그레이스랜드	저 장미꽃 위의 이슬	Bill Ingram	송재원			
III부	아케관현악단	Shema His Love	William J. Reynolds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배홍간	15-4	엘리아	본인	이하영	14-13	안드레	본인	정성희	10-8	사랑부	아유화/이계홍
채교현	16-6	비올라	박아선/장다아	경희영	14-13	루디아	본인	이안진	13-9	중등부	곽태수/이인보
이미란	15-4	마리아	남한주/김희순	이미진	5-13	사랑부	아유화/이계홍	이경민	교	초등부	곽태수/이인보
홍준석	3-20	베드로	박길희/황선옥	박복실	9-12	도르카	본인	이주원	육	유년부	본인
박희준	16-13	보비	본인	오승현	14-10	청년부	김미선/김은희/황유원	박미르	1	유년부	아유화/이계홍
임애연	3-20	보비	박길희/황선옥	노경훈	8-2	청년부	양세영	이지매	국	유차부	본인
김지희	13-28	루디아	김남희	고현정	14-13	대학부	이재경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경영	1-29	루디아	장애진	송재윤	3-20	대학부	박아선/김유희				

☞앞면에서 계속

8. 의료 상담 / 이지동(정형외과), 민효영(내과)

주요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9. 일제심방 / 8일(화) : 14-7 10일(목) : 14-8 11일(금) : 11-7

☑결혼

1. 김요한 군(김성곤 신장수씨의 장남)과 정아연 양(15교구 정병대 성도 정춘혜 집사의 차녀)
/ 11일(금) 오후6시30분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 4층 아도니스홀(1fl. 3474-5000)

☑장례

- 1.故 최정인 성도 (16교구 장연자 성도 모친, 이진테 성도 장모) / 1일(화) 별세 3일(목) 발인
- 2.故 정용택 성도 (16교구 서은함 성도 부군) / 1일(화) 별세 3일(목) 발인
- 3.故 조필수 집사 (13교구 김현승 집사 모친, 이기수 성도 장모) / 2일(수) 별세 4일(금) 발인
- 4.故 정처선 (10교구 정택영 성도 부친) / 3일(목) 별세 5일(토) 발인
- 5.故 윤복순 성도 (1교구 조남선 성도 모친, 임춘자 집사 시모) / 5일(토) 별세 7일(월) 천국환송예배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현재였던 것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과거로 만들면서 새 현재를 도입시키는 비판적인 제 행동의 연속을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은 물결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역사의 변천에 맞춰진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랍의 비극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속명이 인간을 짓밟는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광세에서 우주가 인간을 말살한다 해도 인간은 우주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인식하되 자기의 비참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금수들은 자기의 비참을 모른다.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인식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본 자만이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케 될 것이다.

-이종윤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청결 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는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십시오.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